



◇근대 최초 불상으로 꼽히는 김복진의 '미륵불'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

### 덕수궁미술관에 가면

### 한국근대 조소미술작품전

## 김복진 '미륵불' 등 감상

국립현대미술관이 10월 31일까지 덕수궁 분관에서 여는 '한국근대미술:조소·근대를 보는 눈'전에 가면 근대불교미술의 선구자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현대조각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까지의 조소작품 7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복진(1901~1941)의 높이 117cm 크기의 '미륵불'. 1905년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범어사 나한상, 김만술(1911~1996)의 '불두' 등이 그것.

이 가운데 근대불교조각의 선구자였던 김복진이 남긴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진 '미륵불'이 백미. 도판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이 미륵불은 근대미술사 최초로 제작된 미륵불이다. '미륵불'은 1925년 동경미술학교 재학시절 출가했을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김씨가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을 의뢰받고서 제작했다.

이번 전시회는 계동산 소림원(주지 봉래스님)에 소장된 실물 미륵불의 멀티볼 조각. 실물은 흙과 니금으로 제작했다.

부산 범어사의 '나한상'은 이번 전시회에서 근대조소의 기점으로 삼은 작품. 고개를 약간 틀리고 미소짓는 나한상의 모습을 통해 이제까지 결코 동적이지 않고 근엄하기만 했던 우리 전통불교 조각에서 새롭게 근대적인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운법교 교수(경원대)는 "오밀조밀하고 외형적인 완결성이 강조된 일본의 불교조각에 비해 근대불교미술의 조각품은 좀더 역동적이며 장엄한 무게감이 느껴진다"며 "2천년간 면면이 이어온 불교미술 특히 조소의 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ooxu@buddhapia.com)



◇부산 범어사 '나한상' 등이 그것.

## 연극 '두타' 윤회메시지 '관객호응'

5일까지 세실극장서

### 말보다 몸짓연기 희로애락 표현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로 '탐욕과 망상을 떨쳐 버리고 수행 정진한다'는 뜻을 가진 '두타(頭陀)'.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신체의 움직임과 몸짓을 통해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신체연극 '두타'(강만홍 작·연출)가 5일까지 서울 덕수궁 옆 세실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주제를 배우의 몸짓 연기로 표현한 '두타'는 스님처럼 머리를 깎은 연기자들이 웃음을 짓고 무대에 올라 태초의 에덴동산에서부터 권력의 탄생, 그리고 식욕과 성욕, 권력욕에 집착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까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때로는 웅크리고, 구르고, 울부짖고, 웃고 심지어는 성행위를 하는 몸짓까지도 표현한다. 하지만 전혀 천하거나 원색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교적인 몸짓을 추구하며 선(禪)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망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또 모든 것은 무상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주요 메시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폭력성과 권력욕을 통해 인간의 사악함을 표현한 이 작품에서는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파괴적인 힘겨루기와 칼부림, 독살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하며 물구나무선 거부와의 자세를 조금씩 움직이는 등 새로운 움직임도 보여준다. 또 선(禪)적인 구도를 암시하는 죽비가 소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두타'는 이미 지난 86년 뉴욕 라마다극장에서 초연돼 격찬을 받던 세계 무대에서도 소개돼 호응을 받은 작품. 그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지난 6월 미아리 활인 소극장에서 재공연됐다.

◇대사없는 신체연기로 선(禪)적인 감동을 전달해주는 불교신체연극 '두타'가 세실극장에서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배우들의 동작 하나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동작"이라고 평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렇게 '두타'가 뉴욕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한국적인 몸짓으로 극찬을 받은 것은 연출가 강만홍씨의 독특한 훈련 방식에서 비롯됐다.

강만홍씨는 "북한산 중턱에 매일 올라가 배우들에게 불교적인 체험을 위해 단전 호흡과 참선 등을 지도하며 집중과 몰입을 훈련 시켰을 정도"라며 "신체연기의 기본들도 요가와 선무도 등을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02)736-7600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9월의 문화인물

### 매월당 김시습

문화관광부는 15세기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생육신의 한 분인 매월당 김시습(설잠스님·1435~1493)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김시습은 1435년(세종1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동봉(東峰),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3일을 통곡한 끝에 출가했다. 이때부터 10년간 전국을 만행하고, 이때 얻은 견본과 정회를 담아 <매월당시사유록>을 남겼다. 31세 때부터 경주의 남산(일명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정착하였으며,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우는 <금오신화>를 창작했다. 49세 이후 소양호 주변의 청평사, 설악산 등지에서 수행했고, 다시 강릉지방에서 만행하다가 마침내 충청도 홍성 무량사에서 입적했다. 그때 나이는 59세(성종 14년). 무량사에는 스님의 부도가 남아 있다. 저서로는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묘법연화경별찬(妙法蓮華經別讚)> <매월당집>이 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매월당 설잠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원도, 강릉문화원과 협조하여 15일 강원도 강릉 문화예술포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또 충청남도와 부여문화원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11일 부여군 무량사에서 매월당 추모백일장을 마련하고, 4~5일 '탄생지에서 금오신화 집필지까지' 11일 '은둔처에서 입적지까지'의 매월당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한다.



## '영남범음범패' 비디오 나왔다

불교 음악의 진수인 범패의 원문과 해석이 담긴 비디오가 불교계 처음으로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년전 영남범음범패 태일을 제작, 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부산의 범음범패 제작연구소(대표 이현담)에서 제작한 비디오는 재대령과 관육의 두편, 20개로 제작된 영남 범패의 인간문화재 구암스님의 구음 태일과 그의 문집(義文集)으로 출판되었던 영남범음집을 한데 묶어 비디오로 제작한 것이다.

천도재에 널리 쓰이는 재대령과 관육 부분을 일차로 제작한 이 비디오는 범음의 원문과 해석 자막을 범패가 전래된 영주 남장사, 생계사 등의 영상과 함께 담고 있다. 영가 천도시 먼저 일체 제불을 모시는 거불, 영가를 청하는 대령, 영가의 넋을 맑혀 주는 관육까지의 뜻을 담고 있어 범패의 이해를 쉽게 해주고 깊은 맛을 한껏 느끼게 해준다.

범패를 구성하는 구음의 원문과 뜻을 몰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 원문-해석 자막처리 재대령·관육편 영상화

온 스님과 일반인들에게는 교과서로, 불교음악과 불교사적 측면에서는 자료 가치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과 해석은 범패부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구암스님을 비롯한 원르스님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비디오는 영남범패와 호남, 경기범패로 양분되는 범패의 호

를 중 영남범음범패의 교과서 역할과 아울러 영남범패를 폭넓게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범패가 세상일을 보게한 태일과 비디오 작업은 이현담 거사의 개인적 범패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해 더욱 의미 깊다. 음악을 가르치다 범패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생업을 포기하고 무작정 범패 연구에 뛰어들 결심이기 때문. 범음범패제작연구소 이현담 대표는 비디오 제작을 결심하고 2년여의 제작기간동안 범패를 우리나라에 전래한 진감선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5천km의 대장정을 직접 영상 촬영하는 열성을 보였다.

전무한 범패 자료를 남긴다는 자긍심으로 작업했다는 이대표는 "비디오 자료가 범패의 보존과 전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디오로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각림스님 작 제위행존사

### 각림스님의 허허전

4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사찰에서 쫓겨는 나무가지, 문짝, 관자 등을 생활소품으로 거듭나게 한 각림스님(대전 여래사 주지)의 '허허전'이 1일부터 4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구, 목걸이, 장승, 나무병풍, 액자 등과 같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생활소품과 수묵담채화 7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수재민과 젊은 학인스님들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 문화 단신

#### 조계종 창작찬불가 공모

창작 찬불가에 대한 지변 확대와 유능한 불교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계종 문화부가 창작 찬불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신청서 교부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응모기간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응모요령은 1인이 각 부분별 1곡에서 3곡까지 출품 가능하며 모든 응모 작품은 피아노반주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발표는 12월 30일. (02)739-1830

#### 10월 26일부터 '종교미술제'

제3회 종교미술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미술제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각 종교 미술가들이 제작한 종교성질은 서양화 동양화 관화 등 회화와 조각 서예 사진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출품작수는 1인 1작품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종교예술제는 음악 미술 영화 학술세미나 등 각 부분별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더불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02)739-1830

### 신간

육바라밀이 어렵다고요?

##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4×6판 / 186면 / 3,500원



보시바라밀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  
해탈의 주춧돌인 게을·행복의 묘약인 인욕·  
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우름 되찾는 선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정진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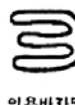
지계바라밀

이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선정바라밀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인욕바라밀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반야바라밀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160면 / 값 3,5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조형물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국판 / 320면 / 7,000원

이야기로 풀 '오분량 예불문'!!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II. 오분량례 III. 부처님이사여, 크나큰 진리여
- IV. 거룩한 사대보살 V. 명산회상의 제자들
-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VII.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240면 / 5,000원